

제5호


동행

동자과 산업기업을 말한다
한국 마사회

두 학생의 평창캠퍼스 견문록
평창으로 가는 길

축산 산업 기업 소개
카길 애그리퓨리나

너의 신년 소망을 말해봐!
동자과 크리스마스트리



살충제 계란파동
과연 농민들만의 잘못인가?

同行

同行

1. 같이 길을 감

2. 같이 길을 가는 사람



Publisher's Note

동행 제 5호

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서는 그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관악산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저희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동행 또한 오랜 수면기를 깨고 나와 다시금 활동할 때인 것 같습니다.

3호부터 5호까지 동행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며 항상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나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분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동안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고 결국 방황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이러한 방황에 대한 시죄의 의미로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동행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주기적이고 친근한 소식으로 동문분들을 찾아 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5기임시국장 유승학
난방이 되지 않는 방안에서, 초코우유를 마시며

* 후원에 관련된 사항들은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구독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walktogether16@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살충제 계란, 과연 농민들만의 잘못인가?



이미지 출처 : YTN

지난 8월 대한민국의 식품 안전에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국내생산계란에서 살충제가 발견된 것이 그 시발점이다. 이 사건 때문에 소비자를 비롯해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가게에서는 한동안 계란을 구매하는데 큰 비용을 할애하였다. 과연 이 살충제 계란 사태는 왜 일어난 것이며, 어떤 대처방식이 적절할까.

닭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케이지에 가둬 놓고 사육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케이지에 갇혀 있는 닭의 몸에 있는 진드기를 제거 해줘야 한다. 이 때, 살충제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사용된 살충제 중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조사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바로 닭의 케이지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살충제를 사용하였고 케이지에 잔류해 있던 살충제를 닭이 흡수하고 흡수된 살충제가 달걀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의 대략적인 원인이다. 닭의 케이지를 소독하는 이유는 닭 진드기 때문인데 특히 7~8월에 가장 진드기의 활동이 활발해서 그 기간동안 소독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같은 소독과정을 거쳤겠지만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환경적인 이유가 있다. 이번 여름철 기온의 상승으로 예년 보다 진드기의 활동이 활발했고 진드기들이 기존의 약품에 내성이 생겨서 강력한 살충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살충제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 제품에 드러나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농가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사용한 살충제에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한다.



살충제 계란 파동

2016년 12월 9일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계란관리 강화 내용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국회보류
10월 7일	-복지위 국정감사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 살충제 계란 의혹 제기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약속
2017년 7월 20일	벨기에, 일부 계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 검출 발표
8월 7일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살충제 계란 발견
8월 9일	국내 농장 대상으로 살충제 잔류 검사, 살충제 성분 미검출
8월 10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내산 계란, 닭고기 안전” 발표
8월 14일	경기 남양주, 광주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검출
8월 15일	-정부, 계란 출하 잠정 중단 -정부, 3000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 대상으로 전수 검사 진행 -대형마트 3사, 계란 판매 중단 -전분 순창에서 ‘비펜트린’ 추가 검출
8월 16일	강원 철원, 경기 양주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추가 검출

살충제 계란 파동 경과 / 자료출처 : The 300

소비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소비자들은 흔히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가 양계 농장의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이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첫째로 우리 소비자들도 일부 잘못이 있다. 요즘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싼 것을 찾는다. 요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비싼 외식을 하면서도 마트에 가서는 싼 농산물을 찾는다. 유기농 계란이 아무리 좋아도 일반 계란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구매에 있어서 좋은 질과 싼 가격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외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과 가격에만 너무 집중하는 현상 속에서 생산 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집단사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는, 우리가 먹는 상당수의 계란이나 닭이 사실은 대기업의 위탁사육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이 육계농가 91% ‘장악’ … 대량생산에만 혈안” 기사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농가가 위탁 사업을 한다.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농민들은 대기업의 위탁사육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자연방사를 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를 할 수 없고, 설령 어렵게 판매처를 구해도 가격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위탁사육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축산물 분야의 대기업 업체들이 닭과 사료를 제공하면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장에서 그냥 키워만 준다. 이렇게 키운 계란 전량을 축산대기업이 다시 사간다. 위탁사육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가끔씩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이런 보상금은 대부분 대기업이 받아간다. 우리가 대규모사육농장에서 키운 닭이나 계란을 싸게 사서 먹을 수 있지만 한 번씩 이런 파동이 일어나면 엄청난 세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축산대기업만 배불리고 농가와 소비자들은 더 어렵게 된다.

이번 살충제 계란에 대한 대책으로 사람들은 방사형 목장을 생각한다. 방사형 목장이란 닭을 케이지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방사하여 키우는 것이다. 자연 방사하여 닭을 사육하면 닭들이 흙에 몸을 비비면서 스스로 진드기를 제거한다. 그래서 닭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살충제가 필요로 되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살충제 계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동물복지를 위해 무조건 방사형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방사를 하게 되면 방사를 한 곳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닭들이 땅을 파고 쪼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이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병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진다. 조류독감에 걸린 철새가 이동하는 도중 철새의 분변이 방사 목장에 떨어지게 되면 그 방사 목장에 있는 닭들은 아마 조류독감에 모두 걸리게 될 것이다. 외부 환경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방사형 목장에서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방사를 하게 되면 닭들이 정해진 곳에서 알을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수작업으로 계란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생산 단가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30개의 계란이 든 계란 한 판의 가격이 3만원에 육박한다면 과연 그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 할 것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에 대한 대책으로 사람들은 방사형 목장을 생각한다. 방사형 목장이란 닭을 케이지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방사하여 키우는 것이다. 자연 방사하여 닭을 사육하면 닭들이 흙에 몸을 비비면서 스스로 진드기를 제거한다. 그래서 닭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살충제가 필요로 되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살충제 계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동물복지를 위해 무조건 방사형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방사를 하게 되면 방사를 한 곳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닭들이 땅을 파고 쪼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이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병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진다. 조류독감에 걸린 철새가 이동하는 도중 철새의 분변이 방사 목장에 떨어지게 되면 그 방사 목장에 있는 닭들은 아마 조류독감에 모두 걸리게 될 것이다. 외부 환경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방사형 목장에서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방사를 하게 되면 닭들이 정해진 곳에서 알을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수작업으로 계란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생산 단가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30개의 계란이 든 계란 한 판의 가격이 3만원에 육박한다면 과연 그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번 살충제 계란은 양계농장의 잘못만이 아니라 소비자, 기업의 잘못이 있다. 그리고 자연 방사에 살충제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번 사태의 해결방법으로 자연 방사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 그럼 살충제 계란을 해결하기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계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법안은 크게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다.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따라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는 「식육종 잔류물질 검사요령」에 따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매년 10만건 이상의 가축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충제 계란 사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계란은 매일매일 생산되어서 나가고 이에 대해 성분검사가 허술했기 때문에 검사로 검출하기 전에 이미 유통 되었다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유통 되는 계란의 성분 검사를 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농민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무지도 하나의 원인이다. 대부분의 농장주들은 살충제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살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되면 안되는 물질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교육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농장에 사용되는 살충제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육 시행 및 교육 관련 법안도 제정해야 한다. 셋째,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계란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또한 해야 할 것이 있다. 가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계란이 생산되는 과정이나 유통되는 경로 등 자신이 구입하는 계란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사태는 소비자들의 무관심도 원인이다. 싼 가격과 높은 질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가격을 고려한다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살충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dited by 안동훈, 이상범, 박수현 / Walktogether16@naver.com



동자과 산업·기업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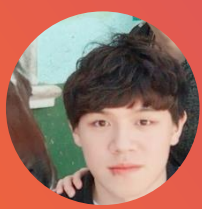
Username

한국마사회



@ung_1216

에디터 이재웅



@Dong_Ja_JoA

에디터 이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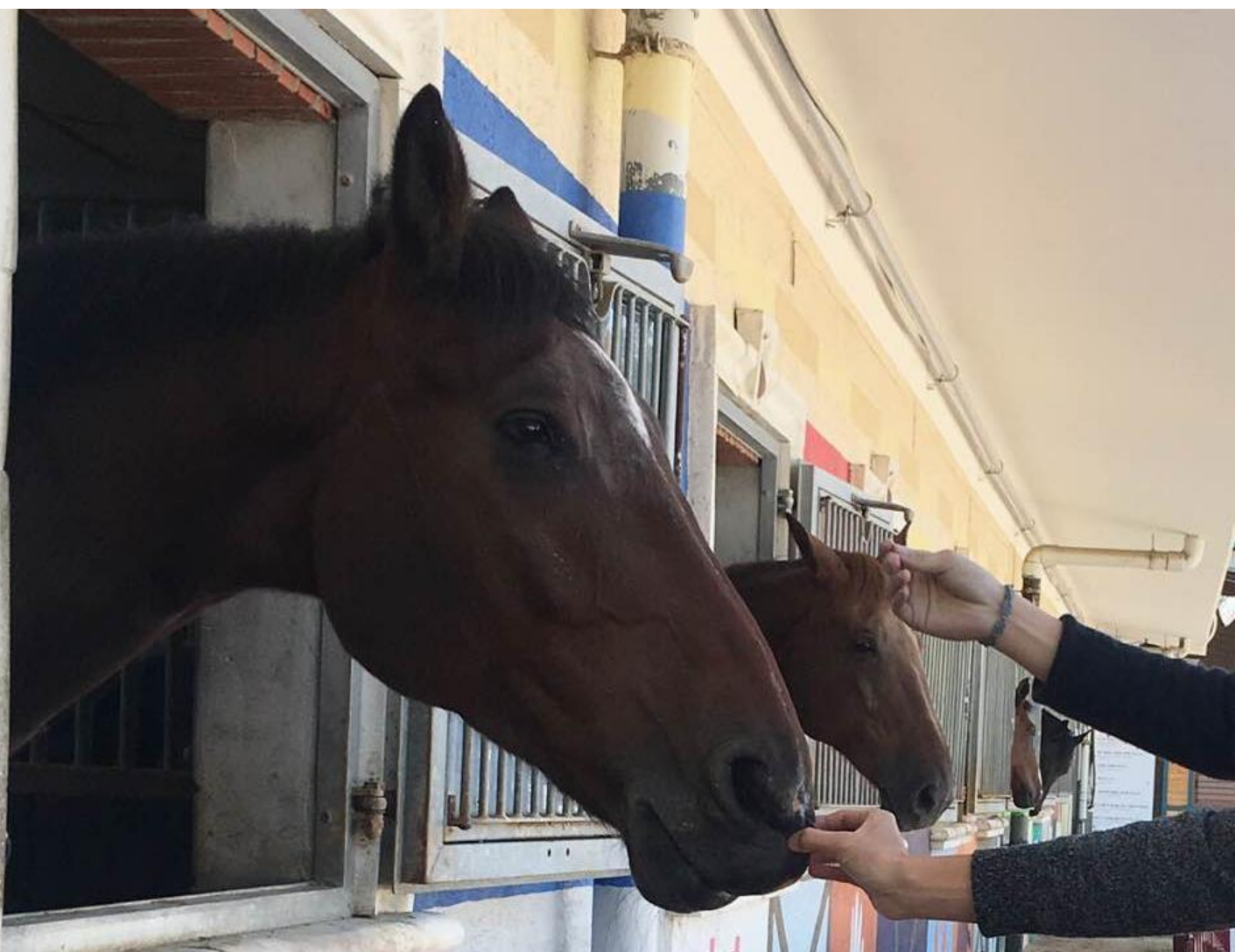
@2mn_bvcxz2

디자인 김민영



Dong_Ja_Joa

말산업이란?



#말산업은 경마, 승마 산업과 관련된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등 모든 산업을 말해요.

말산업은 2011년 9월 10일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말산업 관련 산업체 수 또한 꾸준히 늘어나 2016년 기준 #2,278개에 달한다고 해요!



Dong_Ja_Joa

말산업 현황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말산업의 전체 규모는 #3조 4120억원으로 작년 대비 5.6퍼센트 증가하였는데요, 전체 3조 4120억원 중 #경마산업이 #2조6천억원 정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마산업 이외에도 정기적인 승마 인구, 승마 체험 인구, 승마 시설 수, 말 사육 두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말산업이 가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겠죠?



Dong_Ja_Joa

한국마사회란?



한국마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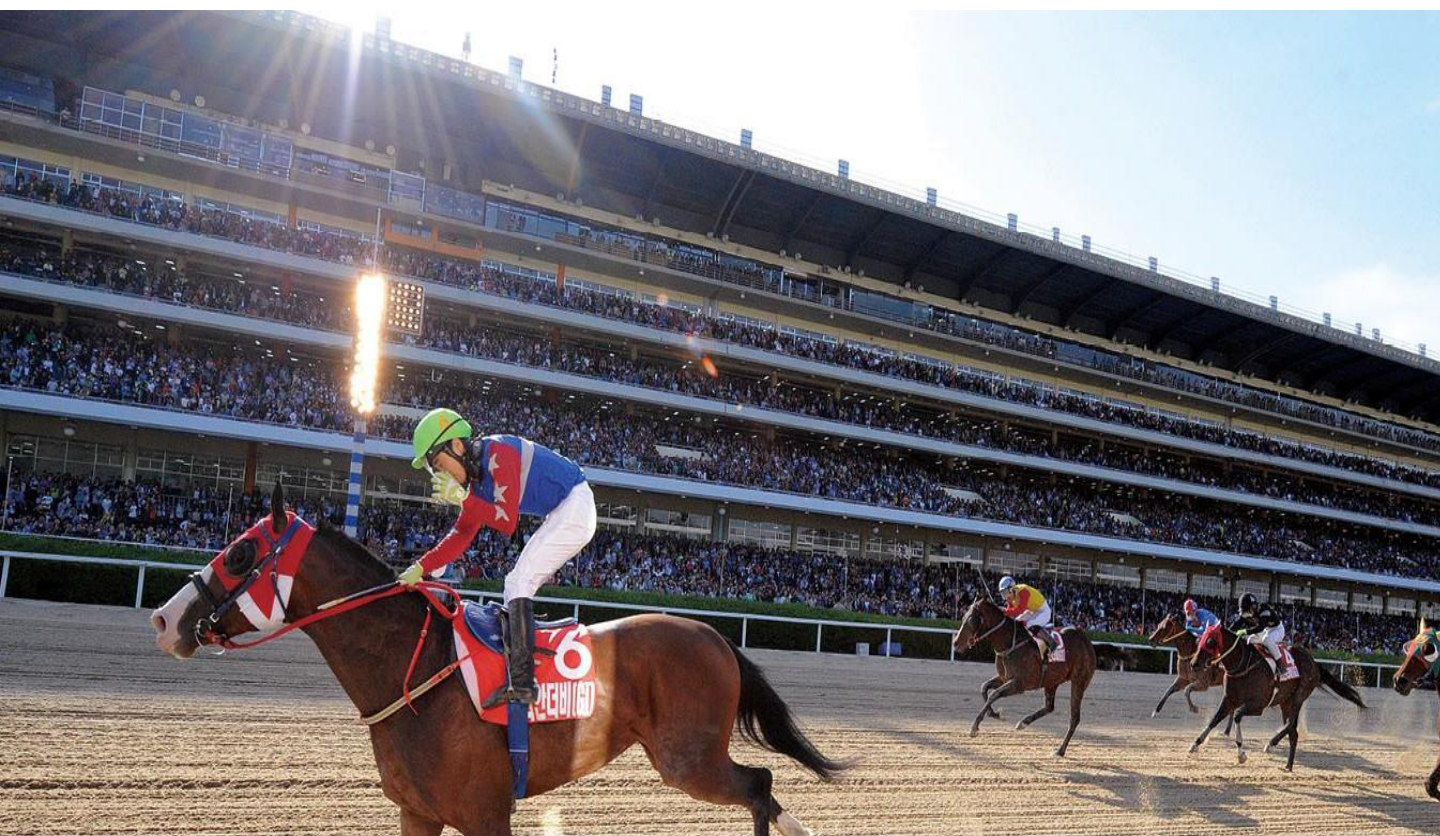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 및 #국민의 복지증진, #여가선용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에요. 한국마사회는 1922년 설립된 이래로 말을 사육하고 초지를 관리하는 #1차 산업부터 경마, 승마와 같은 레저 스포츠, 관광산업을 담당하는 #3차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여가 생활과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현재는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기업 이미지와 한국마사회가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겠다는 기업 정신을 담은 [#Let's Run]이라는 기업 브랜드를 내세우며 기업의 존재가치, 미션, 비전을 공고히 하고 있죠.



Dong_Ja_Joa

한국마사회의 역사



한국마사회는 1922년 4월 5일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 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1942년 3월 1일 #조선마사회가 설립되었는데요, 독립 이후 1949년 9월 29일 그 명칭을 조선마사회에서 한국마사회로 개칭하였고 이 날을 기업 창립기념일로 삼고 있어요. 그 뒤 1954년 #뚝섬에 최초의 서울 경마장을 개장했고 1962년 #한국마사회 법을 공표하였는데요, 1989년에 뚝섬의 서울 경마장을 #과천으로 옮긴 이후로 1990년에는 #렛츠런파크 제주를 개장하고 2005년에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을 개장하며 사업을 확장했어요.

한국마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공정한 경마를 시행하고 있고,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된 후에는 #말산업 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어요.



Dong_Ja_Joa

한국마사회의 주요 사업 및 관련 시설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경마예요. 경마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대해 마권을 발매하고, 순위를 맞춘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해요. 오로지 한국마사회만 경마를 개최할 수 있고, 마주, 생산자, 경마 관련 단체의 협력과 고객의 참여를 통해 경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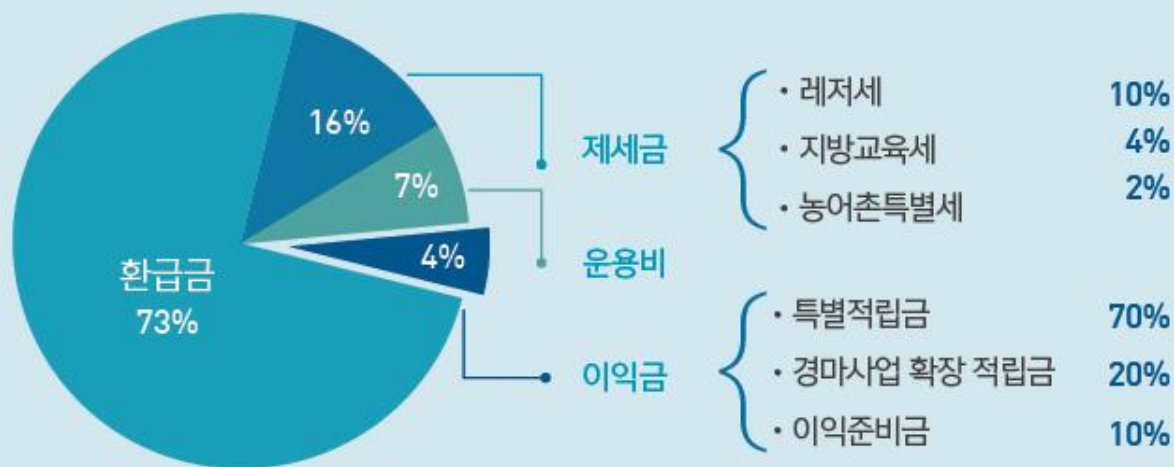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공원은 #렛츠런파크 서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렛츠런파크 제주 총 3개가 있는데요, 렛츠런파크는 단순히 경마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가족 놀이공원으로 건전한 레저문화 공간을 조성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렛츠런파크 서울 수용인원은 약 70,000명으로 3개의 경마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최근에 설립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수용인원이 약 30,000명 정도이며 렛츠런파크 제주의 수용인원은 약 16,000명으로 제일 작아요.



Dong_Ja_Joa

한국마사회의 주요 사업 및 관련 시설



우리나라 말산업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경마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수익 또한 사회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경마 매출액의 16%는 제세금, 7%는 운용비 4%는 이익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73%는 모두 사회에 환원되어 #축산발전 및 #농어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어요. 2016년 기준으로는 #약 1조 7036억 원이 사회에 환원되었다고 하니 국가의 발전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경마 외에도 한국마사회는 제주, 장수, 원당에 3개의 #렛츠런팜을 운영하여 말의 생산·육성 지원 등 말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광지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또한 전국적으로 30개의 #문화공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주민 복지 증진, 문화 융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렛츠런엔젤스를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봉사하며, 4월에는 #벚꽃 축제, 5월에는 #어린이 승마 축제, 7~8월에는 #야간경마 축제, 9월에는 경마올림픽인 #코리아컵 등 다양한 축제를 주최하고 #마지컬, #마케스트라 등 이색적인 말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김용석 선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입사하여 현재 한국마사회에 재직중인 11학번 김용석 이라고 합니다.

한국마사회에는 어떤 부서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경마산업과 관련된 부서와 승마산업과 관련된 부서, 그리고 법률,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 등 매우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 말산업육성본부 생산육성부에서 일하고 있고, 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과 말 수입조사료 관리, 소식지 발간 등 여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동물생명공학전공)를 졸업하면 어떤 분야에서 주로 일하게 되나요?



우리 과를 졸업하게 되면 전공을 살려서 주로 축산 직렬로 많이 입사하게 됩니다. 축산 직렬은 경마산업, 승마산업 구분없이 다양한 말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이것이 축산 직렬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선배



학부시절에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 회사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음..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과의 전공과 100%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축산 직렬로 들어오게 되다 보면 사업 진행을 위해 축산 전공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맡고 있는 사업 중 말 수입조사료를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외국에서 티모시, 톨페스큐, 페레니얼라이그라스 등을 수입하는 서류를 볼 때 학부 때 배웠던 사료학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말의 교배, 번식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는데 학부 때 동기들과 밤새며 힘들게 공부했던 번식학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서 업무를 진행할 때 축산 전공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 전공과목 공부를 성실히 했다면 입사 후 회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마사회는 제주도나 부산, 장수 등 다양한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런 곳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나요?



네. 한국마사회에서는 주로 2~3년 마다 부서를 이동하는데, 본인 의사를 어느 정도 고려해주지만 상황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축산 직렬은 3개의 렛츠런파크(서울, 부산경남, 제주)뿐만 아니라 제주목장이나 장수목장에서 근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직이 아니라 축산 직렬로 입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오하고 입사했습니다.





김용석 선배



사내 문화는 어떤 편인가요?



한국마사회 사내 문화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제일 막내인 데도 불구하고 상사 분들이 저를 부를 때 ‘용석씨’로 불러주는 등 사무실에서 서로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직급에 상관없이 타당한 근거를 들며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주는 편입니다.

또한 업무 외적으로도 사내 음악회, 등산 대회, 농촌 봉사활동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후배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퇴근 시간은 당연히 부서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저의 경우 주로 저녁 7~8시 사이에 퇴근하는 편입니다.

그럼 혹시 회사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ㅎㅎ



ㅎㅎ 아직 입사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았지만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선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한국마사회를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하신 계기와 들어가고자 했을 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군 복학 후 저의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 곰곰이 돌이켜 보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축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둘째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고, 셋째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최선의 선택지가 한국마사회였습니다.

저는 2016년 모집공고를 통해 전체적인 채용 과정과 서류심사에 필요한 스펙을 확인했고 관련 축산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시중의 NCS책을 여러 권 풀고 필기시험 및 면접을 대비해 한국마사회와 축산 관련 지식을 많이 쌓고자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회사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여러 번 있지만,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제가 맡은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승용마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 담당자로서 사업목적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지 부서 분들과 상의해서 최종 계획을 세웠고, 다행히 계획대로 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생산농가분들께 "좋은 교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용석 선배



면접도 보셨을 텐데, 면접 때 어필(?)도 필요한가요?



면접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공지식과 말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공지식은 우리 과를 졸업할 때쯤 되면 많이 습득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면접에서 전공지식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잘 말하기! 깔끔하게 말하기!입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 한 문단 정도로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이유는 a이고, 두번째 이유는 b이기 때문입니다.’와 같은 구조로 깔끔하게 말하면 면접관이 훨씬 듣기 편하겠죠?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깔끔하고, 준비된 면접자라고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음..우선 저도 제 가치관에 따라 한국마사회를 선택하고 운 좋게 입사했습니다. 후배님들도 본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대해 학부생 때 많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입사하고 돌이켜보니 학부생 때 열심히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의 시선에 구애 받지 말고 즐겁게 노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ㅎㅎ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라고 정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채용 접수가 3.21.(수) 14:00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ung_1216

한국마사회 탐방기



인터뷰를 위해 #과천에 위치한 #렛츠런파크 서울로 이동했다.

약속 된 시간이 되어 선배님이 오셨고 특별하게 마사회 #직원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다.

점심을 먹고 인터뷰를 커피를 마시며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는데 공원이자 보니 서울 도심에 위치한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길이 예쁘고 걷기만 해도 #힐링되는 기분이었다.

선배님도 회사의 장점 중 하나로 일하다가 힘들 때 잠시 산책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점을 뽑으셨다.

인터뷰를 마치고 우리끼리 경마공원을 좀 더 둘러보기로 하였다.

먼저 #승마장과 #마사가 있는 곳으로 가 보았다.



ung_1216

한국마사회 탐방기



#마사에는 셔틀랜드 포니, 하프링거, 샤이어 등 다양한 종의 말들이 있었고 일반인들도 쉽게 마사 내부를 구경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말들과 사진 찍고, 쓰다듬으며 교감할 수 있었다.



ung_1216

한국마사회 탐방기



마사에는 #짐마차를 끄는 종부터 #포니(조랑말)까지 다양한 종류의 말이 있었고 사이즈가 아담하여 유소년이 주로 타는 포니 사육마사에는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나와 신기한 표정으로 말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ung_1216

한국마사회 탐방기



그렇게 마사에서 말들을 구경하다 나와 보니 #포니 한 마리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 줄로 묶어 원을 그리며 계속 돌고 있었는데, 말은 운동량이 많다 보니 저렇게 해야 사람이 덜 힘들게 충분히 운동시킬 수 있다고 하셨다. 저 친구는 살이 좀 찌서 더 열심히 시킨다고..



ung_1216

한국마사회 탐방기



한참을 마사에서 말들을 구경하다가 #경마공원 내부도 구경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경마장 내부로 이동하려면 1회용 입장권을 사거나 교통카드같이 생긴 충전식 입장카드를 구매해야 했다. 우리는 #1회용 입장권을 구매했다. 입장료는 2000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공원 전체를 구경할 수 있었다.



ung_1216

한국마사회 탐방기



아쉽게도 오늘은 과천에서는 경마 경기가 없는 날이고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경마 경기가 진행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팅과 결과가 중개가 되어 경마를 하러 오신 분들도 계셨다. 경마공원 내부에는 20~30대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인 #놀라운지에서 렛츠런파크를 처음 방문한 고객들을 위해 경마와 배팅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 경마와 배팅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도 내부를 구경하다가 잠시 앉아 #경마 경주와 #배팅현황을 구경하다가 돌아왔다.



stagram



ung_1216

한국마사회 탐방기



말과 함께한 즐거운 하루였다. ;)

#일상 #말스타그램 #동행 #동자과 #선배님 #인터뷰 #한국마사회 #탐방

학부생들을 위한 평창캠퍼스 안내서

평창으로 가는 길!

지은이 : 양진성, 지상혁

엮은이 : 유승학



1장. 평창캠퍼스 가이드

0. 머릿말

‘우리 학교의 캠퍼스는 몇 개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관악캠퍼스,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 연건캠퍼스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또 다른 캠퍼스가 있다. 그 곳이 바로 우리가 소개하려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이다. 사실 이 평창캠퍼스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관악캠퍼스나 연건캠퍼스에 비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의 경우 평창캠퍼스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아는 경우에도 거기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농생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필자의 경우에도 견학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평창캠퍼스의 존재만을 알았다. 이러한 평창캠퍼스에 대한 무지의 원인은 아마 평창캠퍼스가 관악캠퍼스나 연건캠퍼스처럼 학부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평창캠퍼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평창캠퍼스는 농생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졸업 후의 길을 선택하는데 하나의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평창캠퍼스의 모든 것을 소개하려고 한다.



- 평창캠퍼스 가이드맵

평창캠퍼스의 홈페이지는 www.greenbio.snu.ac.kr 이다.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평창 캠퍼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1장. 평창캠퍼스 가이드

1. 배경 및 필요성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는 농업생명과학의 학문 영역 확대, 농산업을 융, 복합화, 다양한 사회적 요구 충족, 농산업을 미래상 제시 등 변화와 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생기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자연, 환경 그리고 생명을 통합하는 융·복합 학문으로 확대 변화
- 녹색 성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농산업 범위 확대
- 전통 농업에 다양한 학문과 산업이 융합한 미래 농업 구현 필요
- 현장 밀착형 산학 협력 및 농촌 경관 보존의 사회적 요구 충족
-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 및 농촌 모델 제시

2. 비전 및 목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는 미래 지향적 교육 및 연구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대표하는 바이오 분야 허브로서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그와 동시에 학문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고 산업분야 쪽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들을 기르는 것 또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의 목표이다. 그런 점에서 비교적 이론 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관악캠퍼스 내의 대학원과는 차이가 있다.

평창 캠퍼스 내에 조성되어 있는 목장, 산업 기업들을 통해 기업들과의 연계 연구가 용이하고 자신이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클러스터 = 산업 집적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1장. 평창캠퍼스 가이드

3. 시설 안내



<http://greenbio.snu.ac.kr/include/?pidx=3&htop=MN0001&ctop=MN0010&ptop=MN0001>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들 수 있으며 캠퍼스의 모습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VR 투어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 우사시설, 계사시설 : 소를 중심으로 하는 대동물과 가금을 중심으로 하는 조류의 대규모 사육이 가능한 자동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 연구 기능을 수행과 기업과의 산학 협력 R&D 사업을 지원하는 동물자원 현장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실험에 필요한 동물들을 사육하는 공간이다. 관악캠퍼스에서 필요한 실험동물들의 경우에도 여기서 제공을 한다. 그리고 관악캠퍼스에서 팔리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름의 계란이나 우유의 경우 여기서 생산, 가공을 거쳐 판매가 된다.
- 유리온실 : 평창캠퍼스 내에서 식물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식량 및 원예작물을 증식시키고 실험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 연구 온실, 식물 성장실, 저온창고, 분석실, 재배 포장, 온실 환경 제어 프로그램 등이 있다.
- 상록학생생활관 : 대학원 학생들의 기숙사가 있다.
- 산학협력단지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들이 있는 곳으로 평창캠퍼스와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게스트하우스 : 평창캠퍼스 내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이다. 누구나 신청을 하고 머무를 수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 교직원의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 주거그린시설 : 학내 교직원, 연구원, 입주 기업의 직원들의 숙소가 있다.

1장. 평창캠퍼스 가이드

4. 평창캠퍼스의 연구실 소개

평창캠퍼스에는 친환경경제동물연구소, 식품산업화연구소, 종자생명과학연구소, 디자인 동물, 이식 연구소, 그린에코공학 연구소 이렇게 5가지의 연구소가 존재한다. 이 중 우리 전공인 동물생명전공과 관련 있는 연구소는 친환경경제동물연구소와 디자인 동물, 이식 연구소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실제로 친환경경제동물연구소와 디자인 동물, 이식 연구소의 경우 우리 전공 출신의 교수님들도 여러 분 계신다고 한다. 따라서 친환경경제동물연구소와 디자인 동물, 이식 연구소의 경우만 언급하도록 한다. 다른 연구소에도 관심이 생긴다면 <http://greenbio.snu.ac.kr/>를 들어가 보도록 하자.

- 친환경경제동물연구소 : 자연 순환과 동물 복지에 기반을 둔 첨단 친환경 축산 신기술 상용화, 21세기 한국의 생명축산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앞으로 미래의 친환경 축산 신기술과 생산 현장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전문 허브의 역할과 현장 중심의 친환경 축산 신기술 및 첨단 농생명공학 바이오 신기술의 연구/개발/컨설팅/보급 주체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동물 복지 연구부 / 친환경 축산소재 개발 연구부 / 유가공 기술 연구부 / 초지초사료 연구부 / 한우 연구부 / 가금 연구부 / 동물 백신 및 면역 조절 사료 첨가제 연구부 / 융합형 육제품 연구부 / 말 연구부 / 원천 미래 기술 연구부로 구성되어있다.)

- 디자인, 동물 이식 연구소 : 형질 전환 기술 적용한 차세대 동물 자원을 개발, 장기 이식을 통한 난치성 질병 해결, 재생 의학/줄기 세포 및 질병 모델 분야의 선도적 연구 수행
바이오 이식, 형질 전환, 비교 면역, 세포 치료, 영장류 모델, 마우스 표현형 등 전문화된 연구 및 상호 교류를 통한 차세대 질병 치료 기술 개발로 실용화 선도

(바이오 이식 연구부 / 형질 전환 연구부 / 비교 면역 연구부 / 세포 치료 연구부 / 질환 모델 연구부 / 영장류 모델 연구부로 구성되어있다.)

1장. 평창캠퍼스 가이드

평창캠퍼스 연구실의 세부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관악캠퍼스 동물생명공학 전공의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분야도 있지만 유가공 기술 연구부나 말 연구부와 같이 관악캠퍼스의 연구실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또한 연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평창캠퍼스의 경우 관악캠퍼스의 연구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조금 더 산업분야와 연계하여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의 경우 평창캠퍼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5. 짧은 견학 일기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를 타고 가서 장평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리고 장평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차로 몇 분을 더 타고 가야 평창캠퍼스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동하는데 불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카풀이 진행되고 있음. 카톡을 통해 연락하면 택시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데려다 주는 것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평창캠퍼스의 경우 정문, 동문, 서문, 남문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연구동에서 먼저 강의를 듣기 위해 평창캠퍼스의 정문을 통해 연구동으로 들어갔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넓고 건물이 적다는 것을 느꼈다. 듣기로는 평창캠퍼스가 관악캠퍼스와 크기가 비슷하다고 하고 또 평창캠퍼스는 아직 관악캠퍼스와는 달리 아직도 여러 건물들을 짓고 있는 단계여서 그렇게 느낀 것 같다. 먼저 연구동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에게 평창캠퍼스에 대하여 소개를 많이 들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목장, 그 중에서도 축사시설로 이동했다. 축사시설에는 여러 개의 동이 있었고 각 동에도 여러 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각 칸에는 태어난 시기에 따라 소가 단계별로 나뉘어져서 길러지고 있었다. 송아지의 경우에도 태어난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칸에서 길러졌다. 임신한 암소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각 칸에 여러 마리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먹이나 물의 경우 TMR 조제기를 통해 여러 종류의 사료를 배합하고 레일을 통해 차가 스스로 적당한 양의 밥을 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장. 허철성 교수님 인터뷰

1. 평창 연구소와 관악 연구소의 차이는?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면 이 이론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관악 연구소는 과학적인 이론을 많이 연구하는 곳이지만 이 이론들을 실질적으로 쓰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격차는 death valley라 불릴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평창연구소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와 대학원생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업계와의 관계가 두터운데 예를 들면 저는 유산균을 다루는 회사(서울우유, 야쿠르트회사 등)와 밀접하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화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 산업체와 이론을 연결시켜주는 연구를 하는데 예로는 우유에 자라지 않는 균을 우유에 자라게 해서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관악 연구소는 과학적인 이론에 집중을 한다면 평창 연구소는 산학에 집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창 캠퍼스의 장점을 얘기하면 평창 캠퍼스는 현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실습 환경이 매우 좋고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1:4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악에는 없는 육가공장 및 유가공장이 있으며 다른 공장도 많아서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교수님께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제품을 가공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생산품이 남게 되면 농가만 망가지는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실을 통해서 생산, 유통 및 과정이 동시에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공의 경우 유제품이 들어가는 음식이 많아져야 유산균을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는 이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먹었을 때 어떻게 비만이 억제되고 혈액 순환이 촉진되며 대장염증을 어떻게 억제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장내 미생군도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람의 몸에서 1.5~2kg를 차지하고 있는 미생물이 어떤 이로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미생물의 좋은 성분을 어떻게 생산하는지의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장. 허철성 교수님 인터뷰

특히, 균을 어떻게 하면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변이식(FMT)에서 균총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치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우유가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우유를 제공할 수 있나요?

한국인은 락토오스 분해효소가 부족해서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못 먹는 한국인을 위해 발효 우유와 효소를 첨가한 우유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우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연구실의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산학이 잘 구축이 되어 산업체와의 연결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에서 포스터를 발표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께서 큰 틀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도방식도 해야 할 것을 지시하는 식이 아니라 범위를 지정해서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점이 저희 연구실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5. 교수님께서 이 분야를 택한 계기는?

저는 예전에 지도 교수님 lab실에서 실험기구를 닦는 알바를 하며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실험을 진행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학부 때도 공장을 돌려서 우유를 만들어 수원에 파는 등의 활동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이 생기고 결국 야쿠르트 회사에 들어가 월이나 쿠퍼스 등을 개발하는 등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2장. 허철성 교수님 인터뷰

6. 이 분야에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하신다면?

human physiology, 생화학, 일반 미생물학을 잘 알면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7. 평소에 아쉽다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평창에 다양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여기는 서울에서 너무 멀어 이런 분들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이번 자리처럼 앞으로도 관악과 평창의 교류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8.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분야는, 이 연구는 도전해볼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이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추구하는 것들을 해내면서 이런 성취감을 더더욱 얻기 위해 도전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자세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뿐 아니라 약속을 꼭 지키는 자세, 정직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캠퍼스 견학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실험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 산업 기업 소개

카길

애그리

퓨리나

Editor. 최민우, 최상헌, 최연희
Design. 최지혜

카길애그리퓨리나는 동물 영양 기술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글로벌 동물영양 전문 기업으로, 1865년 설립된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본사를 둔 150년 역사의 카길사의 한국 자회사입니다. 한국에서는 1967년에 설립된 애그리브랜드 퓨리나 코리아와 1987년에 설립된 카길코리아가 2007년 12월 1일에 통합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1968년 국내 최초로 양계용 완전배합사료를 생산하였던,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보다 경제적으로 보다 많이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김해, 송탄, 군산, 천안, 정읍에 HACCP 인증을 획득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평 공장은 한국 최대 규모의 최신 설비를 가진 배합사료 공장으로 전세계 카길 사료 공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입니다. 2010년 당시 최대주주는 네덜란드의 카길홀딩스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2년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올해의 경영자상을, 2010년에는 모회사인 카길사의 ‘Business Excellence Award’를 5회 연속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카길 애그리 퓨리나’는 어떤 기업일까요?

카길애그리퓨리나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동물영양’은 말 그대로 건강한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양질의 신선한 펫푸드를 전하기 위해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장을 방문하여 최첨단 동물 영양 기술이 집약된 신제품과 농장 생산성을 높이는 사양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농장 서비스 활동을 하며, 각종 세미나, 사양가 회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축, 어류, 반려동물 등 축종별 특성에 따른 영양 솔루션을 개발 및 서비스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축종별 성장 모델링을 통해 사료 섭취량을 개선하고, 가축 생산성을 예측하며 환경 조건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료 전문 기술을 적용하면서 동물의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또한 카길애그리퓨리나는 다양한 축종의 제품을 준비하여 여러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퓨리나사료’와 ‘뉴트리나사료’, ‘뉴트리나펫케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길’에 입사하신 선배님 인터뷰

Q. 본격적 인터뷰에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안녕하세요. 동자과 10학번 백승수입니다. 지금 카길 애그리퓨리나에 2013년 12월 2일에 입사를 해서 좀 있으면 입사한지 4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영업직으로 축우 영업부장으로 있습니다.

Q. 동자과 전공 관련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 그 중 카길 애그리퓨리나를 선택해서 입사한 이유나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저는 2학년 때부터 사료회사에 입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국담 행사에서 선배님들이 오셨을 때 여러 회사들의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형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카길이 다른 회사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느낀 부분을 얘기하자면 카길은 먼저 다국적 기업이라는 점이었고 보통 사료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시 주로 계열화 사업, 거의 축산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카길은 사료 분야로 전문화된 조직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카길은 모회사가 철강,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기반이 탄탄한 기업이라는 점 또한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길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각 지역의 작황을 조사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로 정보력이 바탕이 되는 기업이라면 기술력도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제일 많이 될 것 같아서 카길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네 그럼, 간단하게 카길이 무슨 일을 주로 하는 회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앞서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길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 곡물, 생산,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있는 한국 지사인 카길 애그리퓨리나에서는 주로 사료의 생산과 공급, 중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 분야에서는 직접 매장을 찾아가든지 관련 기업체를 찾아가서 저희랑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캐치해서 저희 제품의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회사 내에서 선배님이 맡고 계시는 업무는 주로 무엇인가요?

A. 실제로 직접 농장을 가서 판매를 하는 일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영업부에 소속되어 지역부장으로 하는 업무 외에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일이 있습니다. 모든 농장을 저희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통 지역마다 대리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그 대리점들과 같이 사업을 해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카길 애그리퓨리나 특약점이 있으면 그 내부에는 사장님과 그 아래에 직원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판매과장도 같이 계시고 그 분들과 함께 농장을 방문하고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 특약점이 사업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라든지 판매한 물량에 대한 잔여금 관리 등의 업무도 현재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농장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농장이 더 원활하게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실제 판매와 조직관리, 성장, 경영관리 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외근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외근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A. 저는 지금 포천에 귀거하면서 담당하는 특약점이 포천, 양주, 연천에 위치하고 실제로 담당하는 지역에는 철원, 남양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외근은 일주일에 5일 출근을 하면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Q. 카길에 입사하신지 4년차가 되셨는데요, 학부생 때 생각하셨던 회사 생활이란 실제 회사 생활이란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요?

A. 학부 때 사실 영업 부서를 지원을 하면서 예상을 했던 업무는 농장 관리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고 특약점과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농장의 성적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 라는 것만으로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다 수월하게 소화해내지는 못하는 거라는 것을 입사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앞서 경영 관리 말씀드렸던 부분도 입사하기 전에는 경영 쪽에 대해서는 전혀 나랑 무관하겠지, 하고 생각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운영특징상 사료 제품이 먼저 나간 다음에 축산물이 판매된 후에 회사가 사료에 대한 값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경영 관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담보 설정, 근저당 설정 등과 같은 경영 관련해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Q. 요즘 회사 신입사원들은 야근과 주말근무의 빈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배님은 입사하신지 4년이 되셨지만 선배님이 신입사원일 때는 어땠는지, 또는 요즘 카길의 신입사원들의 야근, 주말근무의 빈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음, 뭐 이걸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말을 드리자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일을 만들려면 끝도 없이 만들 수 있고 일을 안 하려면 끝도 없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밤에 퇴근을 한 후에도 자료 하나라도 더 보게 되고 또 머릿속으로 자기 전에도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사무실이나 특약점에서 조직 내에서 같이 고민하고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의무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 사무직 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Q. 그렇다면 영업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직접 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개인 실적이 중요한가요?

A.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희 실적 급여는 개인 실적으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물량이 있고 신규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래처 중 이탈할 수 있는 거래처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을 개인 실적이라 볼 수 있겠네요.

Q. 동자과의 졸업생들은 타 과 졸업생들에 비해 카길 애그리퓨리나에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음, 제가 졸업학점이 2.7이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2.75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선임 지역부장님들한테 여쭙볼 때도 그랬지만 입사하기 전에, 솔직하게 말해서 아주 막 1점대까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모르긴 하지만, 그 정도만 아니라면 큰 선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합비나 품질관리 쪽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학점 보다는 인성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상인가를 따지게 되는 경우가 실제 당락을 결정하는 더 큰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Q. 학부생 졸업 후 석/박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카길에 입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질문은 저의 개인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버지 정년이 저 학부생 때 이미 지나셔서 저는 대학원 들어가서 실험실 다니면서 공부를 할 생각도 있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의 수입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입사를 결정했었습니다. 또한 위 학번 형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굳이 석, 박사를 하지 않고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배운 전공을 활용해 가면서 부족하지 않은 만큼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Q. 동자과 졸업생도 학부 졸업생과 석/박사 졸업생으로 나뉩니다. 학부만 졸업하고 카길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업무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 사실 영업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품질관리 분야도 그렇고 배합비 분야도 그렇고 학부생도 받으려고 했었으나, 어떤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부서이고 또 R&D 부서에서 사료를 설계하고 제품을 출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사 학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석, 박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들 하시니까, 입사 후에 본인이 나중에 학위를 갖고 싶다, 그러면 회사가 그런 부분을 저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아, 그럼 입사한 후에도 그 분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회사 내에서 개인적으로 더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A. 사실 R&D 부서에도, 입사할 때는 다른 부서로 입사를 하셨다가 거기서 학위를 따시면서 R&D 부서로 옮겨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유동적으로 할 수 있고 카길 애그리퓨리나가 학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기업은 아니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동자과 졸업 후 카길을 포함한 각종 축산업 관련 기업으로 진출했을 때 다른 분야의 기업에 진출했을 때에 비해서 저희 동자과 졸업생들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동자과 얘기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서울대 동자과 잡아요. 대대로 축산, 특히 사료 쪽에서 서울대 동자과가 강세가 좀 있고 동자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학연이다 하고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워낙 이쪽 분야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분들이 옛날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굳혀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농장이나 관련 업체에서도 아무래도 서울대 쪽으로 옛날부터 알고 있던 분들 통해서 인연이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대외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제 농장 가서 컨설팅 하는 부분이라든가 서울대라 하면 저희가 기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쪽에서 수월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동자과 졸업생들이 축산, 사료 분야로 진출했을 때 유리한 점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을 비롯한 여러 제약회사에 오시는 분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약대 분들 소위 나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와요, 그런 자리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동물생명공학을 전공했다, 라는 그게 얼마나 크게 개인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특징이 될 지의 부분에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계로 오셔서 저는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동물생명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이미 사람들이 기대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더 맞춰서 한다면 다른 분야로 나가는 것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사내 문화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회사 복지나 사내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저를 관리하시는 영업이사님이 강조하는 부분이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카겔의 모회사에서까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거 같아요. 그만큼 모든 실적이나 그런 것 보다는 개인이 안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매일 돌아갈 수 있다라는게 가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적을 따지는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도 이해 가는게 사람 다치면 그게 더 손해거든요. 담당하는 직원 또 대체해서 넣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해서 우리 회사사람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Q.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내 복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영업부분으로서 받는 복지가 있는데, 법인카드가 한도가 월 500만원입니다. 밥값, 자동차 유류비, 숙박비, 대리운전 등의 비용까지 지원받고 차,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에 따라 연수라는 명목으로 여행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내 복지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Q. 입사했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학부시절의 소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학생 때 '이것만은 배우고 졸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나요?

A. 제 생각에는 다양한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친해지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등 실제로 업무관계를 원활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부생 여러분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전공교육보다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 드리자면 학부생 때 자기 주장을 파악하고 주장을 조금 넘어섰을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실수 한번 하면 의도치 않게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Q. 이제 인터뷰가 끝을 다해가고 있는데요, 전에 저희 동자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요즘도 그런 것 같지만 저 때에도 생각을 해보면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부 졸업 후 석사를 하고 난 후에 R&D, 연구소, 품질관련 부서, BT, 제약회사로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담 행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축산업계가 엄청 큰 시장입니다. 자본도 상당히 많이 깔려있고 시장 규모도 매우 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계로 진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축산업계로 오셔서 서울대 동자과가 가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십분 활용을 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 또한 저는 미래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업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주위 선배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에게 연락하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선배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A.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인적인 목표로는 경영관련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 한우 보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내 한우와 일본 학우의 보급률은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본의 기술을 배워 한우에 적용하여 한우 보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기의 생산량, 질적인 측면에서 생산성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 제 업무 관련된 목표입니다.

동자와 신년맞이

크리스마스 트리

동자와 친구들의 새해를 맞는 기분과 새해 다짐

Editor. 김동민 Design. 최지혜





16 한기훈
2018년엔 고민이
없길!

17 최연희
2018년도 항상 행복하길.
2018엔 연애하자!!!!
프락치 새터까지
안들키기!!

17 박수현
더 이상
비마이너스는
그만...!

16 이재웅
군대 잘가게
해주세요~

17 조건우
새해에는 드랍하지
말자.

17 장민혁
Happy Happy

16 김소영
새해에는 제발 학점 3
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다..!

17 손범수
새해엔 열심히 좀 살자
범수야 제발



17 박민우
새해에는 수업은
들어가자..!

16 우승제
행복을 위해서!
휴학하고 싶어요

17 홍희상
이름처럼 항상 기쁘고
행복해야지.

17 정민경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좋겠당♡

17 최민우
카투사 불게
해주세요~

16 유승학
하고 싶은거 실패
하자

16 양진성
충성! 이후 동행 잘
부탁해~!!

17 김동민
올해에 느낀 부족함이
내년에는
나아지기를...

17 동희원
해피뉴이어♡ 더
행복한 한해가
되자

17 안동훈
영원히 새내기이고
싶다ㅠㅠ

17 배범석
내년에 균형과
여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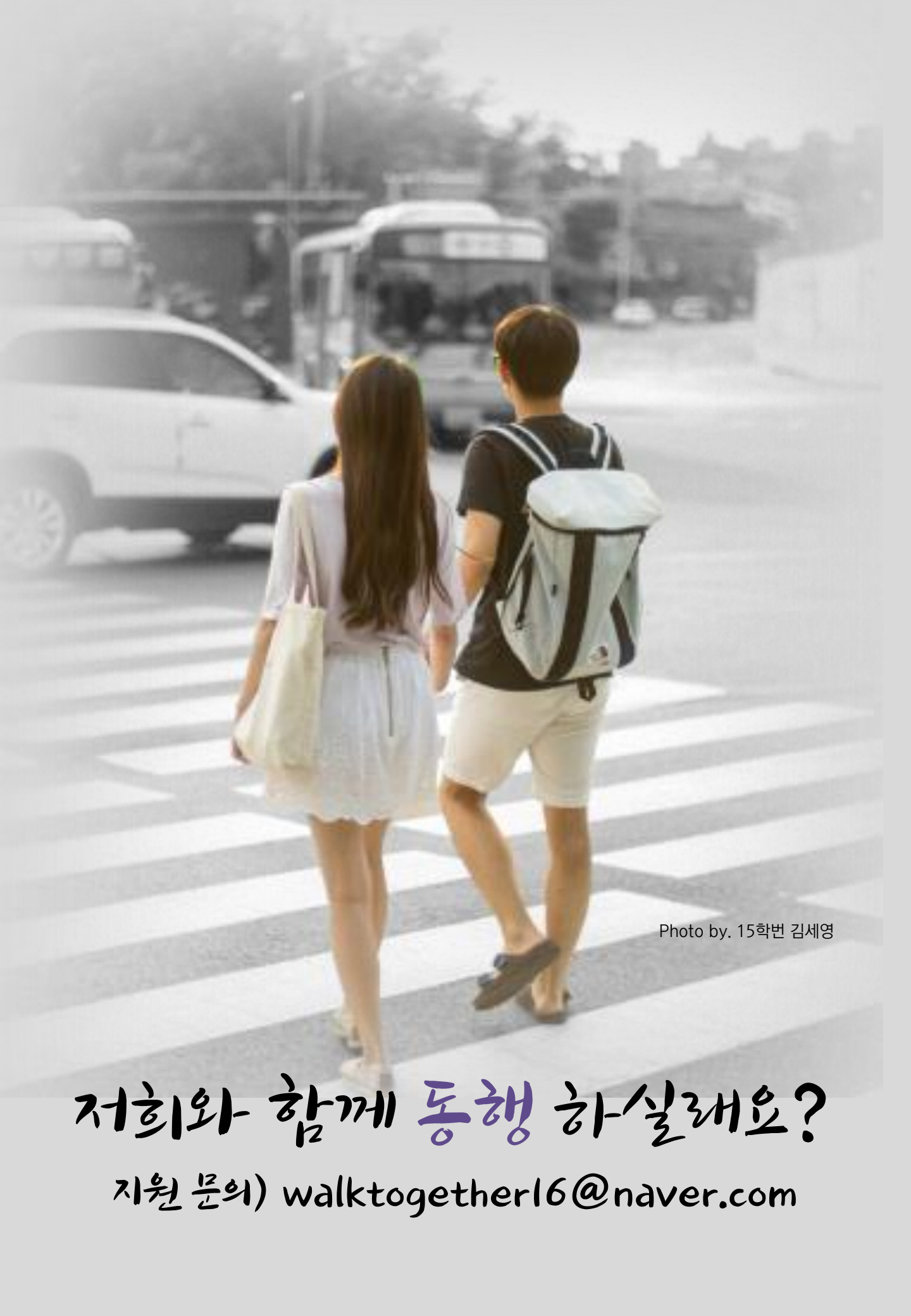


Photo by. 15학번 김세영

저희와 함께 동행 하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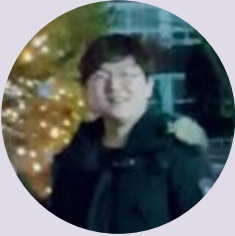
지원문의) walktogether16@naver.com

Editor's Postscript

동행 제4호를 만든 소감

Review

#Main_Topic



에디터 | 이상범

이번호는 저번호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호부터는 동행이 개편된 형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걱정도 되지만 기대가 큼니다ㅎㅎㅎ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호에서도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터 | 박수현

군대 가기 전까지 동행 국장으로서 저희를 신경써 주신 재우형과 그 뒤를 이어 마감까지 노력해주신 승학이형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행 포에버♡♡



에디터 | 안동훈

군대 가기 전까지 동행 이끌어준 재우형하고 재우형을 대신해서 메인도 픽 디자인까지 해준 승학이형 감사합니다~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동행 파이팅!!!!

#Lab



국장 | 유승학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리라 믿어봅니다 ㅎㅎ

에디터 | 양진성

이번에 평창캠퍼스를 방문하여 다룸으로써 새로운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고 특히 국장을 했던 재우와 그 뒤를 잘 마무리해준 승학이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에디터 | 지상혁

이번호는 여러 일 때문에 가장 힘든 동행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부터 동행이 새로운 형태로 선보여질텐데 어떻게 될 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동행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호에도 열심히 해요~

#Industry_Business



에디터 | 최민우

이번에 산업기업팀으로 활동하면서 졸업하신 선배님과 인터뷰 하는 활동을 통해 동자과의 전망을 좀 더 알 수 있던거 같아요! 다들 동행5호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



에디터 | 최상현

군대 가기 직전까지 동행을 이끌어준 재우형과 동행 국장을 한 번 더 맡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책임감있게 마무리해준 승학이형, 너무 멋있었고 두 형을 비롯하여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동행 파이팅!!!



디자이너 | 최지혜

군대 가기 전까지도 동행을 위해 힘써준 재우오빠와 동행 마무리 해주신 승학오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동행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동행 화이팅!♡



에디터 | 최연희

이번 동행을 위해 힘써주신 국장님 재우오빠와 승학오빠, 그리고 각 팀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행화이팅! 동행포에버!



에디터 | 이재웅

동행 시작 때부터 쪽 해운게 벌써 2년을 앞두고 있네요. 그동안 세부적으로는 꾸준히 변해왔지만 이번처럼 확 같아왔던 적은 없었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즐동행~



에디터 | 이수호

군대가기 전까지 동행 신경쓰느라 고생한 재우 그리고 뒤를 이어서 고생해준 승학이 너무 수고 했고 다른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이너 | 김민영

동자과에 들어오고 가장 잘 한 일이 동행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리던 졸업 후의 미래를 동행에서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디자인을 배우고, 해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ㅎㅎ 앞으로도 저처럼 특별한 경험을 다른 많은 친구들도 동행을 통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Under_Graduate



에디터 | 김동민

이번호에서 학부연구생팀은 일이 많이 꼬여서 잘나오지 못했네요ㅠㅠ 다음 호에 더 잘하면 되죠!!ㅎㅎ 군대가지 전까지도 신경많이써준 재우랑 이어받아준 승학이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수고 많았고 다음 호는 개편되는 만큼 더 잘해보요~~~!!

Thanks For your favor

동행은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라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후원 금액은 명단에 1년간 게시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 302-9577-2314-81

문의번호 : 010-9577-2314

후원자 Donor

동행 1호

동행 동아리 부원 500,000원

동행4호

서울대학교 축산학 동문회 500,000원

동행 2호

김유용 교수님 300,000원

최윤재 교수님 300,000원

지원철 회장님 (이지바이오) 300,000원

송형석 선배님 50,000원

박수상 선배님 100,000원

동행5호

송제언 선배님 150,000원

동행

2018년 3월 제 5호

Copyright © 2016 동행

동행이 이 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합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shall not be duplicated, used or disclosed in whole or in part for any purpose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publisher.